

### 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

# “임신 22주 내외 허용”... 구체적 허용기간 입법과제

‘모자보건법 개정’ 불가피  
예측 못한 ‘부작용’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53년 근대 형법과 함께 제정된 낙태죄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식상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초기의 낙태만 허용했다. 현재는 이날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다.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범위 구분과 위반사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불

낙태죄 위헌 헌재 재판관별 결정

<b>위헌 7</b>  유남석(62) 서기석(66) 이선애(52) 이영진(58) 이석태(66) 이은애(53) 김기영(51)							<b>합헌 2</b>  조용호(64) 이종석(58)		
<b>헌법불합치 결정</b> -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b>단순위헌 결정</b> -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과 동일 - 낙태죄 폐지에도 법적 혼란 없으므로 단순위헌 결정		<b>합헌 결정</b> -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 수단 없어 -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가피해됐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를 직접 개정하거나, 예외적 낙태 허용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지만 90년대 이후 초음

파 검사로 성별을 감별해 남자아이만 출산한다는 이른바 ‘태아성별 감별낙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자보건법 규정이 엄격해지고,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부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태아성별낙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여자아이만 낙태하는 상황이 생기는 않을 것” 이라며 “각 가정별 상황에 따라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낙태 허

용에 대한 시각차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적어도 헌재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양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 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시위대들끼리 경찰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아도 생명인 만큼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 시위대를 향해 “편견과 빈곤 등 비혼 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 이미 자행되고 있다”라고 맞서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장홍진 기자 ohngbear@metroseoul.co.kr

## “아시아나 자구계획, 시장 신뢰회복 미흡”

채권단 “사재출연 등 실질방안 없어”  
산은, 회의결과 전달·긴밀협의 나서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10일 내놓은 자구계획안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권단(9개 은행)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 측이 요청한 5000억원을 채권단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장 조달이 확실해 채권단의 추가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 결과를 금호 측에 전달하고,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전량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를 비롯한 그룹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5000억원을 신규 지원해 달라는 자구계획을 전량 채권단에 제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美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브랜드 ‘삼성전자’

작년 7위 ‘소니’ 순위 밖으로 밀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2번째로 사랑받는 브랜드에 뽑혔다. 미국 국적이 아닌 기업 중에서는 최고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25개 브랜드’를 발표했다.

전체 브랜드는 1900여개, 1000명에서 5만6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호감도와 신뢰도 등 4개 항목 점수를 설문조사해 결과를 도출해냈다.

삼성전자는 400점 만점에 237.5점으로

12번째에 올랐다. 지난해 19위에서 7계단이나 상승했다.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위였던 일본 소니가 순위 밖으로 벗어난 가운데, 영국 도보도 17위에 그쳤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점수가 더 높았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를 기준으로는 평점 246.5점으로 8위에 랭크됐다.

/김재용 기자 juk@

### 訃告

趙源泰大人楊州趙公亮鎬以宿患  
二〇一九年四月八日(陰三月四日)  
午前〇時十二分別世茲以訃告

弔問 二〇一九年四月十二日正午부터  
殯所 서울연세葬禮式場特一號室

發軔 및 永訣式 二〇一九年四月十六日午前六時  
場所 서울연세葬禮式場  
葬地 京畿道龍仁市器興區下葛洞先塋

未亡人 李明姬  
嗣子 源泰  
女 顯娥  
孫 顯玟 金美妍  
子 允植 仁植 炯植 朴成俊  
婦 金美妍  
外孫 成敏

護喪 李碩祐  
連絡處 (02) 2227-17500

韓進그룹 會長 楊州趙公亮鎬 以宿患 二〇一九年 四月八日午前〇時十二分別世茲以訃告

二〇一九年 四月 十二日 韓進그룹 任職員 一同

個別訃告를 省略하오니 諒解바라오며 弔花 및 贈儀는 謝絶하오니 協調바랍니다.

護喪 李碩祐 拜上